

# 첨단소재·AI 중심 포트폴리오 확장 독자 경영 닦 올리고 미래사업 정조준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HS효성

14 HS효성



HS효성이 출범 2주년을 맞아 독립경영 체제의 기반을 다지며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자회사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데 이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중심의 독자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부회장은 올해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며 현장 경영 보폭도 넓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소재를 비롯해 AI·데이터,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적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HS효성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70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7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향후 신사업 투자와 사업 확대를 위한 재무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HS효성은 물류와 첨단소재, IT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HS효성은 물류 운송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운송수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보강재와 산업용 원사, 에어백 원단,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담당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와 IT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물류와 소재, IT를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통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업 간 시너지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1위 넘어 미래 소재 키운다

조 부회장은 출범 이후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하며 그룹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보강재로, 완성차 및 타이어 업체의 품질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미쉐린, 굿이어, 브리지스톤 등 글로벌 톱티어 타이어 제조사와

조현상 부회장 중심 독자 경영 체제 구축 2주년  
가치경영 바탕 글로벌 현장경영... '민간 외교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670억, 영업이익 125억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글로벌 시장 1위  
실리콘 음극재·탄소섬유·아라미드 등 미래 준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HPC 등 사업 확대

장기 공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 중국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신사업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차세대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불린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 우주항공과 방산 무기체계의 경량화를 위한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아라미드는 고강도 슈퍼섬유로 방탄복을 비롯한 각종 방산 장비와 전기차용 타이어코드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두 소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S효성은 2000년대 초 화학섬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했다. 2011년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하며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13년 전북 전주에 연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구축한 데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 체계를 갖춰 나갔다.

아라미드 역시 일찍부터 기술 개발에 나섰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03년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하면서도 가벼운 데다 내열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나 방탄 장비를 비롯해 자동차, 통신, 석유·가스,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 시대 '캐시카우' 부상

IT 및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HS효성의 IT 계열사인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와 IT 인프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ICT 기업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와 스토리지 사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그룹 내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해 온 클라우드와 AI 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존 스토리지 중심 사업을 AI와 고성능컴퓨팅(HPC),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기업별 데이터 환경을 분석하고 AI 활용에 필요한 스토리지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제조·공공·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1700여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고성능 스토리지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앞세워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IT 인프라와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 ICT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에서 설계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을 단독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초고속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병렬 파일 시스템(HCSF)과 수평 확장 구조를 구축해 향후 AI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도 마련했다.

연내에는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블록 하이엔드 스토리지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AI 기반 랜섬웨어 탐지 기능인 '사이버센스(CyberSense)'와 재해복구 기능을 스토리지에 통합해 사이버 복원력도 한층 끌어올린다는 포부다.

### ◆ 조현상 부회장,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판 키워

조 부회장은 가치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현장 경영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1월 다보스포럼에서 데넨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리슈트라 주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 계획을 직접 논의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도 투자가 단순 생산기지 확보를 넘어 HS효성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 '테크 텍스틸 2026' 현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를 초청해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주요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속도를 냈다.

특히 조 부회장은 민간 외교관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APEC 기업 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직을 맡으며 글로벌 경제 협력 무대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첨단소재 산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산업재·에너지 기업 등 주요 수요처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만큼, 조 부회장의 대외 네트워크가 향후 사업 확장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회장은 글로벌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가치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파트너사와 동행하는 HS효성의 정신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HS효성나이트 참석자 및 임직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